

제1장 인간복제(Human Cloning)와 신앙

1. 인간복제(Human Cloning)의 충격

1997년 2월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로슬린연구소의 이안 월마트(Ian Walmut) 박사는 성숙한 양의 체세포에서 새끼양 ‘돌리’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본래 생물학에서의 복제는 새로운 동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DNA를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DNA 복사는 생명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돌리의 경우가 특별한 것은 세포핵 전체를 곧 양의 유전체(genome) 전체를 복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체적 복사를 체세포핵치환(somatic cell nuclear transfer)이라고 부르고, 보통 복제라고 할 때에 이것을 지칭한다.

그 당시 이 발표는 세계를 경악케 했다. 복제양 돌리의 출현은 ‘분화가 끝난 세포(체세포)의 비가역성’이라는 지금까지의 정성을 깨뜨린, 생명과학의 발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믿어졌던 기술, 즉 성숙한 체세포로부터 새로운 개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배아의 세포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포유동물의 복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인간복제의 가능성이었다. 타임지와 같은 시산 주간지도 이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영혼의 전율”(soulquake)이라는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영혼은 복제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시했다. 인간복제 문제는 대두되자마자 과학적 주제만이 아닌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부각된 것이다. 스코틀랜드 교회를 포함한 세계 교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대부분 신학적 반론을 제기하며 인간복제를 맹렬히 반대했다. 그러나 돌리 탄생이후, 생명과학자들은 경쟁적으로 복제동물들을 생산해냈다. (1998년 - 미국 하와이대 야나기마치 박사팀, 생쥐 복제, 1999년 -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 젓소 영롱이 복제, 2000년 - 호주, 양 마틸다 복제, 2002년 프랑스 국립농업경영학연구소 - 토끼 복제, 미국 텍사스 A & M 대학 고양이 복제, 2002년 12월 26일 - 미국 클로네이드사, 사상최초로 인간복제를 통해 복제아기 이브가 탄생하였다고 선언, 그러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

2004년 2월 서울대 황우석·문신용 교수팀이 세계최초로 사람난자에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다음 아닌 한국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다시 대두된 것이었다. 물론 얼마 못가서 황교수를 중심으로 한 성과들의 허구성이 드러남으로써 세기적 스캔들이 되고 말았지만, 아무튼 한국이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외국 언론들은 인간복제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국가로 한국을 꼽고 있다. 세계수준의 복제기술, 혈연중심의 유교적 배경,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정부정책, 과학자들의 생명윤리의식 결여, 인간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법률 등이 그 이유이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추진해 오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1월 29일 법률로서 공포되었다.(2005. 01. 01 시행) 더욱이 2005년 1월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법률에 따라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세계 최초 복제인간 생산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해외 언론의 예찬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법안과 연구승인의 과정에는 수반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일부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너무 보수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인 반대만 일삼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대한 문제를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특히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청지기의 임무를 자각하고 생명과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공적논의와 법률 제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세계 최초의 복제인간 생산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인간복제와 관련되어 많은 신학적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주제, 곧 유전자신화, 복제인간의 영혼, 복제아이의 존엄성과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유전자신화

유전자결정론은 하나의 신화이며 사실이 아닌 허구이다. 생명과학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두 가지의

검증되지 않은 사상적 기초가 있다. 첫째는 생명체의 기본단위가 유전자(DNA)이므로 모든 것을 유전자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유전자환원주의이고, 둘째는 생명체에 대한 모든 것이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으며 그것에 의해 진행된다는 이른바 유전자결정론이다. 많은 유전생물학자가 이 유전자환원주의와 결정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복제양 돌리의 출현으로 부각된 인간복제의 가능성에 격분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전자결정론에 빠진다는 사실이다. 인간복제에 대한 두 극단적 입장들 - 적극적 지지와 맹렬한 거부 - 모두가 유전자 결정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전자결정론은 사실이 아닌 허구이며,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이 유전자 결정론에 대립되는 또 다른 극단적인 입장은 환경결정론이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유전자결정론자는 그것이 유전자 본성이라고 주장하고, 환경결정론자는 환경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인간이 한 인격적 주체로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유전자적 특성, 환경, 그리고 마음**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지닌 특성은 주어진 환경과 유전자적 제한을 의지로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환경과 유전적 제한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례와 중생은 생물학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거듭남을 뜻한다.

생물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DNA)의 염기서열은 이 세 요인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결코 유일한 요인이 아니다. 즉, 한 사람의 인격은 유전자와 그를 둘러싼 환경과 그의 마음에 의하여 총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예컨대,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히틀러의 복제인간이 만들어 졌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히틀러와 같은 미치광이 독재자가 되리라는 법은 없다. 이것은 일란성쌍둥이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복제와 일란성쌍둥이는 생물학적으로는 동일하고, 다른 점은 후자는 자연적인 유성생식에 의하여 동시에 태어났고, 전자는 일정한 시간 뒤에 인위적인 무성생식에 의하여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일란성쌍둥이들은 비교적 유사한 환경 속에서 양육되었으면서도 서로 다른 특징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복제인간은 그에게 DNA를 제공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른 두 인격적 개체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경악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싶은 좋은 간에 인간 복제의 가능성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복제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분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복제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 교회가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원자폭탄과 시험관 아기의 경우처럼 인간복제 및 유전자조작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다. 여기에 교회가 가져야 할 신학적 전략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관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그것을 연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구체적 방법을 궁리하는 일이다.

3. 복제인간의 영혼

복제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그렇다 복제인간도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 질문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목회자에게도 충격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복제의 수용 여부와 별도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한국의 어느 교회도 인간복제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경로이든 간에 복제인간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는 결코 추상적 질문이 아닌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의 문제이다.

만약 복제인간들이 폐쇄적 혈통주의가 지배하는 인종차별적 한국사회에 태어난다면, 그들은 사회로부터 엄청난 차별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통 받는 복제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갈급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 교회는 복제인간이라고 해서 그들의 교회 출입을 거절할 권한이 있는가?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생명을 사랑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이미 태어난 복제인간을 복제품이라 해서 그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할 권한이 없다. 미국국립 유전과학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을 들어보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생식되었든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고 천명한다. 만약 사람들이 복제되었다면, 그들도 모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고유한 가치, 존엄성, 도덕적 지위와 동등한 사회적 권한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생식 원천을 이유로 차

별 받아서는 안 된다. 복제된 인간들에게도 다른 인간들과 완전히 동등한 자율, 동의, 기회균등의 원칙들이 주어져야 한다.(Cole-Turner, 144)

복제인간의 영혼은 단지 그에게 유전자를 제공한 사람의 영혼을 복사한 복사체(xerox copy)인가? 그렇지 않다. 일란성쌍둥이들이 서로 다른 인격과 영혼을 가지고 있듯이, 복제인간 또한 그에게 유전자를 제공한 인간과는 서로 다른 인격과 영혼을 갖게 될 것이다. 유전과학은 인간의 육체를 결정하는 요인이 DNA라고 밝히고 있다. 영혼은 어떠한가? 성서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복제를 막으려 노력해야 하지만, 복제인간의 등장한다면 그를 고유한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고 돌보아야 할 것이다.

4. 복제아이의 존엄성과 가족관계

인간복제가 초래할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존엄성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이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간생명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 변형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복제는 임신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식관련 병원들은 복제를 선전하여 잠재적 부모들의 구매의욕을 부추길 것이다. 의료, 건강 보호 등의 구호로 포장하지만, 생명과학기술은 큰 시장을 만들고 그에 의해 부와 권력을 축적하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 물론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기 위해 애쓰는 헌신과 노력 그리고 성공할 때 얻는 기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생식과 관련되어 인간복제와 생명공학이 가져올 위험은 아이들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의 가능성이다. 선호하는 대상 인물이나, 좋은 머리 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DNA를 빌려와 복제임신하려는 사람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맞춤 아기”(designed babies) 시대가 열리면 자연생식(reproduction)은 물품생산(production)과 유사해져 아기들은 상품들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통해 불멸을 찾기 위해 자신을 복제하려는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출현도 예상된다. 그렇다면 교회와 신학이 이에 대해 할 일은 무엇인가? 분노, 두려움, 맹목적 반대만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사태를 직시하고 서로 연대해서 새로운 윤리적 비전과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여 그것들을 공론화하고 법률화 할 것인가?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과 더불어 인간복제가 가져올 심각한 도전은 가족개념에 대한 문제이다. 아버지의 복제인간이 생산되었을 경우, 자식들은 아버지와 쌍둥이인 이 가족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는 이복남매, 계부모가 많은 서양사회에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마 혈연주의 윤리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복제인간의 출현은 전통적 가족개념에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복제인간의 출현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중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한국인이 지닌 가족에 대한 폐쇄적 혈연주의가 성서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 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반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2:46-50, 막 3:31-35, 눅 8:19-21) 그리스도는 복음서를 통해 혈연적 관계(유전자적 연속성)를 넘어서 개방적 가족 관계를 이미 오래 전에 천명한 것이다. 신학적으로, 가족공동체의 근본은 혈연보다는 말씀, 유전자적 연속성에 의한 생물학적 연결보다는 말씀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 곧 사랑의 실천에 있다. 성서가 주장하는 가족은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고 버려진 자와 아픈 자를 향한 구체적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제가족구성원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폐쇄적 혈연주의를 극복하고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개방적 가족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은 우리에게 생물학적 인간에서 벗어나 영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부여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론은 전통적 가족관념을 해체하며, 모든 형태의 유전자 신화(환원주의와 결정론)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인간복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결국 이 그리스도론적 전환에 동참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더욱 심화하라는 것이 아닐까?

※ 자세한 내용은 “김흥영, 『현대과학과 그리스도교』 (200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를 보세요.

Cole-Tuner, Ronald(1997). ed. *Human Cloning: Religious Respons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